

06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비교

■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 St. Antony's College, Senior Associate
Member

주요 논저

『중앙아시아의 지역통합: 기회, 제약성, 전망』(2008)
『체제전환기의 러시아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2009)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 · 민족 정체성』(2009, 공저)

Contents

- 1 서론
- 2 시장경제 이행의 이론적 틀
- 3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 비교
- 4 시장경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비교
- 5 결론

본 연구는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초기조건 및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양국의 상이한 경제 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방식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전략에 대한 선택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개혁정책의 차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진다.

2000년대 이후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을 능가하여 역내 지도국으로 나설 수 있는 더욱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첫 10년 동안은 1차적으로 실효성 없는 체제전환전략 및 무기력한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주요 수출상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취약한 출발로부터 회복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1차적으로 자국의 조건에 부합하는 체제전환전략과 균형 잡힌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주요 수출상품 가격의 상승 경향으로 인해 초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세기가 전환 되면서 카자흐스탄에 뒤처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향한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기둥이 될 적절한 제도를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주제어

충격요법, 점진주의, 체제전환전략, 초기조건, 경제실적

1. 서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대조적인 접근 방법과 전략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건설에 있어서 초기조건, 모델, 접근 방법 및 전략, 경제정책, 경제실적 등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한 공화국으로 소련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기구를 건설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독립 이후 수년 동안 연방 탈퇴에 따른 현실적인 충격을 겪었으며, 국내적인 갈등 속에서 국가 건설에 나서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카자흐스탄이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전략은 사실상 러시아가 채택한 전략과 매우 유사했으며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 사유화라는 두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었다. 이 두 가지 정책패키지는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의도되었으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이른바 ‘충격요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체제전환에 관련된 워싱턴컨센서스의 강력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초기조건에 근거하여 점진주의 접근의 체제전환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고유한 경제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체제전환 초기에 우즈베크 정부의 주된 관심은 급격한 생산 축소 방지와 강력한 사회적 보호 그리고 공업부문의 증강을 통한 경제 현대화였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목표가 체제전환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0년의 체제전환을 경과한 2000년대 초 15개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실적이 단연 두드러졌는데,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에 CIS 국가 중 최초로 1989년의 실질 GDP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3% 초과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워싱턴컨센서스의 정책을 거부한 소수의 구소련 공화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실적과 워싱턴컨센서스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IMF/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주변에서 “우즈베크의 역설” 혹은 “우즈베크의 성장 수수께끼”라 불리기도 했다.

본 연구는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초기조건 및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양국의 상이한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방식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전략에 대한 선택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개혁정책의 차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제전환 직전 양국의 초기조건은 어떠한 차

이를 보였으며 체제전환전략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양국의 체제전환 전략 및 정책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1990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던 것은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며,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이 우즈베키스탄을 능가한 것은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2008년 이후 본격화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양국에 달리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절에서는 체제전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제도 구축과 초기조건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3절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시장경제 건설에 앞선 초기조건을 비교하고, 양국이 선택한 체제전환 모델과 그 적용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 건설 과정에서 양 국가의 차이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다음 4절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적 성과와 경제실적을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누어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시장경제 건설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시장경제 이행의 이론적 틀¹⁾

(1)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

일찍이 구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경제개혁의 속도 및 순서를 둘러싸고 이른

1) 이 글의 내용은,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슬라브연구』 제25권 1호(2009), pp. 103~136을 참조.

바 충격요법과 점진주의의 접근방법 간에 논쟁이 전개되었다.²⁾ 그러나 하브릴리쉬(Havrylyshyn)은 점진주의, 빅뱅(충격요법), 제도주의 관점이란 세 가지 상이한 접근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³⁾ 발세로비츠(Balcerowicz), 클라우스(Klaus), 삭스와 우(Sachs and Woo)는 체제전환 경제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변화의 급속한 실시를 옹호했다. 아지온과 블랜차드(Aghion and Blanchard), 드와트리폰트와 롤랜드(Dewatripont and Roland)는 점진적인 접근이 혼란 및 산출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머렐(Murrell), 클레이그와 로이저(Claque and Reuser) 등 제도주의자들은 자유화에 있어서의 신속한 변화, 그러나 신중하게 고려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⁴⁾

충격요법 모델의 근거에 있는 가정은, 가격자유화는 시장경제의 나머지 요소가 뒤따르도록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충격요법

2) 충격요법과 점진주의의 간의 이론적·정책적 차이 및 비교에 대해서는, 김영진, “러시아 국내 경제정책과 발전전략”, 홍완석 외,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p. 238~249를 참조.

3) O. Havrylyshyn, *Divergent Paths in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apitalism for All or Capitalism for the Few?* (New York: IMF and Palgrave Macmillan, 2006), p. 23.

4) 체제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L. Balcerowicz,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isons and Lessons”,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27, No. 1(February 1994), pp. 47~59; V. Klaus, “The Ten Commandments of a Systematic Reform Revisited”, *IFC Fourth Annual Lecture* (Washington: IFC/World Bank, 1995); J. Sachs and W. Thye Woo,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Vol. 9, No. 18(April, 1994), pp. 101~145.; P. Aghion and O. Blanchard, “On the Speed of Transition in Central Europ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 Annual* in S. Ficher and J. Rotemberg(eds)(Cambridge: MIT Press, 1994); M. Dewatripont and G. Roland, “Economic Reform and Dynamic Political Constrain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9, No. 4(October 1992), pp. 703~730; P. Murrell, “How Far Has the Transition Progresse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0, No. 2(Spring 1996), pp. 25~44; C. Clague and E. Reuser(eds.),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ies in Eastern Europ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2).

모델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가격시스템의 자유화 없이는 진행될 수 없으며, 가격시스템의 자유화는 태환가능 통화가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태환가능 통화는 경쟁이 없이는 정착될 수 없으며, 경쟁은 구조조정이 없이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⁵⁾ 충격요법론자들은 왜곡된 가격을 유지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지대추구(rent-seeking), 그리고 부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⁶⁾

점진주의의 옹호자들은 경제를 즉각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적·사회적 조직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요법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⁷⁾ 점진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유화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시장제도와 시장과정의 실제적인 진화가 병행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⁸⁾ 다시 말하면, 점진주의자들은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진화적인 방법에 더욱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충격요법론자들은 합리성과 편의성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변화를 지지한 반면, 점진주의자들은 경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접근을 선호했다.

이러한 양 접근과 더불어 충격요법 모델과 점진주의 모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⁹⁾ 롤랜드(Roland)는 어떤 사람

5) J. Marangos, “Was Shock Therapy Really a Shock?”,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7, No. 4(2003), pp.943-967.
 6) A. Akimov and B. Dollery, “Financial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50, No. 9(2008), p.14.
 7) K. Hawtrey, “Financial Market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Agenda*, Vol. 3, No. 2(1996), pp.195-206.
 8) A. Akimov and B. Dollery(2008), p.14.
 9) 예를 들면, 다음을 참조. V. Popo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The End of the

혹은 국가에게는 빠른 것이 다른 사람 혹은 국가에게는 느린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¹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모든 체제전환 국가들은 고유의 체제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충격요법이나 점진주의라는 이분법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IMF, 세계은행 및 EBRD와 같은 국제기관들은 각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종종 각 지역·국가의 국지적인 환경과 각국의 주민의 요구를 도외시하였다. 어떤 구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은 개혁 프로그램일지라도 다른 국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헝가리와 에스토니아의 체제전환에서 성공적이었던 방법이 카자흐스탄에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하는 만능의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¹¹⁾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개혁론자들은 어떤 체제전환일지라도 거시경제의 안정화, 사유화, 가격자유화라는 세 개의 기둥에 근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 개의 기둥은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기존의 재산권 제도는 사유화 개혁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정부는 부패하여 경쟁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사회·정치적 제도는 투자에 대한 위협을 낳

Debate(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2, No. 1(2000), pp.1-57.; G. Roland and T. Verdier, “Transition and the Output Fall”, *Economics of Transition*, Vol. 7, No. 1(1999), pp.1-28.
 10) G. Rol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2002), pp.29-50.
 11) D. Rodrik, *One Economics Many Recip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166-167을 참조.

았으며, 법의 지배와 투명성은 거의 확립되지 않았다.¹²⁾ 따라서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각종 제도를 건설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진 것이다.¹³⁾

26개국에 이르는 체제전환경제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 실증분석에서는¹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안정화, 가격자유화와 함께 초기조건과 제도구축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국에서는 제도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유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존의 경영진·종업원으로 이루어진 내부자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필요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보였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내부자 통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킨다.

(2) 체제전환과 초기조건

체제전환에 관한 많은 연구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성장에 초기조건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독일의 뒤셀도르프를 기준으로) 더욱 동쪽에 위치한 국가나 사회주의 하에서 더욱 오랫동안 지낸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¹⁵⁾

[표 6-1] 체제전환 경제의 비교·역사와 초기조건

	체제전환 착수시점 (T기)	1인당 소득(PPP), 1989년	1인당 GDP (PPP), T기	공산 주의 시작	초기조건 지수 ¹⁾	민족 분열 ²⁾	천연 자원
발틱 국가	1992	7,973	6,119	1940	-0.2	0.50	빈약
중부·동유럽	1990/91	5,760	7,242	1947	2.6	0.26	빈약
CIS 7개국	1992	5,831	4,986	1922	-1.6	0.38	
러시아	1992	7,720	9,077	1917	-1.1	0.31	풍부
우크라이나	1992	5,680	5,998	1918	-1.4	0.42	중간
벨라루스	1992	7,010	6,660	1918	-1.1	0.37	빈약
몰도바	1992	4,670	3,311	1940	-1.1	0.55	빈약
그루지야	1992	5,590	4,650	1921	-2.2	0.55	중간
아르메니아	1992	5,530	2,160	1920	-1.1	0.12	빈약
아제르바이잔	1992	4,620	3,046	1921	-3.2	0.31	풍부
CIS-5개국	1992	3,658	3,562	1921	-2.8	0.57	
카자흐스탄	1992	5,130	5,615	1921	-2.5	0.68	풍부
우즈베키스탄	1992	2,740	2,195	1921	-2.8	0.48	중간
키르기스스탄	1992	3,180	2,978	1921	-2.3	0.66	빈약
타지키스탄	1992	3,010	1,866	1921	-2.9	0.58	빈약
투르크메니스탄	1992	4,230	5,154	1921	-3.4	0.46	풍부

주: 1) 지수가 더욱 높은 수치를 가질수록 더욱 유리한 초기조건을 의미한다.

2) 범위는 0과 1의 사이에 위치하며, 0은 민족분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April 14, 2004), p.14의 내용을 이용하여 재작성.

[표 6-1]은 체제전환 경제에 있어서 초기조건의 다양한 내용과 그 지수를 나타낸다. 체제전환에 착수한 시점에 CIS 국가의 1인당 소득수준은 발

12) D. Rodrik(2007), p.153.

13) 세계은행은 제도를 "사회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룰 및 그 시행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은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실체(The distinction is attributed to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도와 구별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공식적 제도의 예는 법률과 규정 및 계약이며, 비공식적 제도에는 신뢰, 윤리, 그리고 정치 규범 등이 포함된다. 조직은 정치조직(의회, 정당, 정부기관, 사법부), 경제조직(민간기업, 노동조합, 기업인협회), 그리고 사회조직(NGOs, 학교, 친목회) 등을 포함한다. Shahid Javed Burki and Guillermo Perry(eds.), *Beyond the Washington Consensus: Institutions Matter* (Washington, DC: World Bank, 1998), p.11.

14) Stanley Fischer, "Ten Years of Transition: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IMF Staff Papers*(Special Issue), Vol. 48(May 2002).

15)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April 14, 2004)를 참조.

트해 연안국과 중부·동유럽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CIS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순이었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 표는 EBRD에 의해 계산된 초기조건 지수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큰 초기조건 지수를 가진 국가는 체제전환 시점에 더욱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발전수준, 코메콘에 대한 무역의존도, 거시경제의 불안정(억압된 인플레이션, 암시장 프리미엄), EU와의 거리, 천연자원 부존량, 시장 경험 및 국가 역량에 관한 요소분석으로부터 산출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EBRD의 초기조건 지수에 의해 측정된 경제의 왜곡수준은 중부·동유럽보다 CIS 국가에서 훨씬 높았다.

[표 6-1]은 초기조건과 관련된 그밖에 다른 지표들을 보여준다. 민족분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CIS 국가들은 중부·동유럽 국가들보다 민족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으나, CIS 국가들 내에서도 커다란 다양성이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민족분열 정도가 더욱 높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민족분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CIS 국가들 중 일부는 여타 국가에 비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CIS 7개국 중에서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조건역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고찰되었다.¹⁶⁾ 전반적인 결론

16) 초기조건역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M. De Melo, C. Denizer, A. Gelb and S. Tenev, "Circumstances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866 (December 1998); A. Berg, E. Borensztein, R. Sahay and J. Zettelmeyer, "The Evolution

은 초기조건역의 영향은 체제전환의 출발시점에는 강력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다. 초기조건역의 역할 감소는 각종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초기조건역 지수에 관한 계수는 거의 항상 작은 값을 보인다. 초기조건역 지수가 '체제전환 기간' 더미변수와 교호작용을 할 경우, 그 계수는 마찬가지로 작은 값을 갖긴 하지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뀐다. 즉 체제전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기조건역의 중요성은 더욱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 비교

(1) 초기조건 비교

1990년대 양국의 발전경로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두 국가가 직면한 초기조건역이었다. 양 국가가 직면한 초기조건역을 살펴보면, 일견 두 국가가 공통의 발전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양 국가는 제국주의라는 공통의 유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 거시경제의 불균형, 몇 가지 사회지표 등에서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표 6-2] 참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정치적으로 약 55년의 차르 지배와 71년의 소비에트 지배라는 공통의 유산을 거친 후 1991년에 독립을 획득했는데, 독립 이후의 신정부는 소비에트 체제 말기의 지도

of Output in Transition Economies: Explaining the Differences", *IMF Working Paper*, WP/99/73(May 1999); Oleh Havrylyshyn and Ron van Rooden, "Institutions Matter in Transition, But So Do Polic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5, No. 1(March 2003), pp.2-24.

자와 동일한 지도자(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가 이끌었다. 양국은 대단히 독재적인 정권을 계속 공유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초기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보다 더욱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¹⁷⁾ 양국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물려받았는데, 산출에서 차지하는 농업과 공업 및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양국은 또한 동일한 수준의 억압된 인플레이션과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을 안고 체제전환을 시작했다. 양국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이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두 국가뿐인 이중 내륙국이다. 기대수명(유아사망률은 상이), 문맹퇴치율, 취학률 등의 면에서 두 나라의 사회지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

[표 6-2]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 비교(1990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사점		
정치구조		
소비에트 중앙계획 하의 시기	71년	71년
독립 당시 권력구조의 변화	불변	불변
경제구조		
총산출에서 농업/공업/서비스의 비중(%)	31	29
총산출에서 공업의 비중(%)	33	34
총산출에서 서비스의 비중(%)	36	37
거시경제 지표		
억압된 인플레이션	25.7	25.7
암시장 환율(공식환율 대비 %)	1,828	1,828
대외부채(GDP 대비 %, 1991)	0	0
사회 지표		
출생시 기대수명(1981-90)	68.1	68.2
중등학교 취학률(%)	98	99

17)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는 1992~1993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7점 척도에 6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캄보디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의 점수는 양쪽에 대해 5점이었는데, 이는 이집트, 쿠웨이트 및 가나와 같은 수준이다.

상이점		
인구구조		
인구(백만 명)	23	15
도시 인구(총인구 대비 %)	40.6	57.6
16세 이하 인구의 비중	60	40
인구성장률	2.5	1.2
지배민족의 비중(1993)	70	43
경제구조		
공업산출에서 채굴산업의 비중	12	65
공업산출에서 제조업 및 식품산업의 비중	70	33
천연자원 부존량 및 생산량	중간수준	풍부
재생가능 확인석유매장량(백만 톤)	41	449
거시경제 지표		
1인당 GNP(PPP, 달러 1989)	2,740	5,130
GDP(10억 달러)	23.7	40.3
GDP 성장률, 1981-89	3.4	2.0
수출량(GDP 대비 %)	29	74
사회 지표		
1000명 출생당 유아사망률(1981-90)	42.7	29.2
빈곤율(하루 2달러 이하 %)	26.5	15.3
(우즈베키: 1993, 카자흐: 1996)		

출처: Asad Alam and Arup Banerji, "Uzbekistan and Kazakhstan: A Tale of Two Transition Pa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472*, (November 2000), p.14.

하지만 다른 많은 면에서 양국은 대단히 상이하다. 핵심적인 차이는 인구 구성, 러시아와의 경제적·사회적 연결, 농업과 공업의 구조, 그리고 소득수준과 천연자원 부존의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 인구가 더 많은 국가다. 동 국가는 60%의 인구가 16세 이하로서 40%인 카자흐스탄에 비해 훨씬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종족적으로 더욱 동질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인구의 70%가 우즈베크 종족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약 40%의 인구가 카자흐족으로서 훨씬 다양한 종족구성을 가지고 있었다.¹⁸⁾ 또한 러시아 민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무

역과 자금 흐름 면에서 러시아에 대해 강한 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경제상황 전개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차이점 또한 큰데, 우즈베키스탄은 1천년 동안 정주민족으로서의 문명과 문화 및 지식을 갖고 있으나 카자흐 민족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유목민이었다.

양국에서 농업과 공업은 산출에 거의 동일한 정도로 기여했지만, 생산 구조는 크게 상이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과 경제개혁의 미래 경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면화생산 경제였는데, 면화는 농업산출의 60%와 수출수입의 30%를 차지했다. 또한 면화의 생산은 면사 및 섬유생산 측면에서 경제에 전방연쇄효과를 가졌다. 이것은 농업에 기초한 식료품 산업과 결합하여 공업산출의 50% 이상이 제조업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공업부문은 추출산업(연료, 에너지, 금속, 그리고 화학제품 등)에 편중되어 공업산출의 약 65%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과 식료품산업은 공업산출의 1/3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전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초기조건에서의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카자흐스탄의 막대한 천연자원의 부존이다. 풍부한 석유자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카자흐스탄에는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모든 금속이 추출가능한 양만큼 존재한다고 주장된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당시에도 광범위한 금속의 가장 큰 수출국의 하나였으며 카스피 해안을 따라 미개발 석유매장량의 잠재력이 막 현실화되기 시작

18)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실증분석은 취약한 제도와는 별개로 종족이 소득, 경제성장 및 경제정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하고 있었다.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외국자본 유치의 필요성은 카자흐스탄에서 더욱 빠른 개혁 속도와 더욱 높은 대외지향 수준으로 이끌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에서 광물자원의 개발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문제를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고통을 수반했을 수 있다.¹⁹⁾ 다른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 및 곡물의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낮은 공업화 수준을 비롯하여) 일련의 상이한 초기조건이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곡물의 자금자족을 지원하는 자금자족 정책과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천연자원 부존에서의 이러한 차이가 가진 의미는 산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카자흐스탄 경제는(강철, 아연가공, 구리제련, 알루미늄가공,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를 비롯하여) 광물과 석유생산물과 연결된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공업도 존재하긴 했지만 그 중요성은 부차적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훨씬 다각화된 경제를 갖고 있었는데, 면화 및 금의 자원부존 또한 외환유입 및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조업 활동의 여지를 더욱 넓히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독립 이후의 시기에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보다 수출상품가격의 충격에 훨씬 더 노출되었는데, 주요 원료수출품과 가공수출품은 모두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8~99년의 세계적인 자원가격의 하락은 카자흐스탄에 극심한 타격을 가했으며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켰다.

19) 예를 들면, R. Auty, "Natural Resources and 'Gradual' Reform i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Natural Resources Forum*, Vol. 27, No. 4(2007), pp.255~266을 참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난 100년 동안 채취되어 온 석유다.²⁰⁾ 이 석유의 경제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외국투자자를 신속하게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카자흐스탄 정책결정자는 외국투자자를 추출부문으로 더욱 빨리 끌어들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시장지향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다른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자국의 경제를 개방하는 데 더욱 선별적인 입장을 취했다.

(2) 체제전환전략 비교

1)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모델과 그 적용

카자흐스탄이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전략은 사실상 매우 단순했으며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 사유화라는 두 가지 축에 기반을 두었다. 이 두 가지 정책패키지는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의도되었으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이른바 ‘충격요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²⁾

20) 소련의 붕괴는 막대한 잠재매장량을 가진 카스피 해의 유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 중의 하나인 탱기즈 유전의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고립은 흑해로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때까지 대량의 석유산출을 선적하는 데 곤란을 야기했다.

21) 투자자를 서둘러 유치하려 한 결과 카자흐스탄은 예를 들면 법인세에 대한 관대한 면세기간뿐 아니라 모든 투자에 25%의 감가상각 공제를 비롯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상당한 양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카자흐스탄 광물부문의 대규모 과소과세(under-taxation)와 뒤이은 1990년대 말의 재정위기 및 1998-1999년에 GDP의 2%에 못 미칠 정도로 극히 낮은 공공투자율로 이끌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비석유부문의 중기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22) 카자흐스탄이 채택하여 실시한 충격요법 접근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진(2009),

가격자유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데 대한 이유는 명확했다. 시장경제의 각 경제주체는 가격신호, 즉 재화와 서비스, 원료, 노동, 자본, 외환 등의 상대가격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계획체제 하에서의 가격은 행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빅뱅’ 방식으로 일거에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정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 첫째로는 거시경제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투자자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상대가격과 이윤 인센티브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가 곤란할 것이며,²³⁾ 따라서 가격체제는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나 공급의 반응이 커야 하며,²⁴⁾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격은 산출물 구성과 소비패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는 고용의 수준과 생산능력의 이용수준이 높아야 한다. 상대가격 변화에 대한 산출의 반응은 투자율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투자는 다시 경제활동의 템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으면 투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투자가 낮은 수준에 있다면 산출구성에서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pp.115~118을 참조.

23) 특히 각 시장참가자들이 시장경제 및 시장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24)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카자흐스탄에는 가격자유화의 성공에 필요한 이들 조건 중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이 기초한 두 번째 기둥인 사유화도 성공적이지 못했다.²⁵⁾ 사실상,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유화 움직임의 대부분은 전체주의 국가 및 그 중앙집권적 계획으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모로까지 정부통제부문을 축소하려는 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다.”²⁶⁾ 1992년 초 카자흐스탄의 사유화는 소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97년 5월 현재 1만 85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유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약 3000개의 대규모 및 중규모 기업이 포함되었다. 국가기업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적 수증으로 이전되었는데, 바우처 방식, 경매방식, 직접매각방식(예를 들면, 외국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리고 주식매각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된 사유화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는데,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성공적이지도 못했다.²⁷⁾

사유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자체적인 기준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전략적인 실수나 잘못된 우선순위의 사례로 평가된다. 2000년에

25)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시장경제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국유기업 등 많은 소유형태와 양립할 수 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체제전환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하도록 하는 경제이론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사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근거였다고 한다. UNDP, *Kazakhstan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Almaty: UNDP, 1996).

26) A. Leijonhufvud and C. Ruhl, “Russian Dilemm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1997), pp.344~348.

27) UNDP(1996)

들어 사유화의 범위는 줄어들면, 그 방법은 더욱 조직화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통제되었다.²⁸⁾ 이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국제석유가격이 기록을 계속 갱신할 정도로 상승함으로써 국가자산의 매각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모델과 그 적용

우즈베키스탄이 1991년 9월 독립국가로 등장했을 때, IMF는 통상적인 워싱턴컨센서스 권고를 신정부에 제시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신생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이 종래의 정책권고안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초기부터 분명히 드러났는데, 결국에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점진적 체제전환전략을 채택하였다.²⁹⁾ 우즈베크 정부는 주택과 소규모 기업을 신속하게 사유화하고 가격자유화 조치를 수년 동안 추진했지만, 경제의 자원배분 및 국제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했다.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는 유예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었는데, 우즈베크 정부는 종종 공식적인 사유화가 진행된 후에조차 대규모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했다. 우즈베크 정부는 워싱턴컨센서스

28) R. Pomfret, *The Central Asian Economies Since Independ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40~60.

29) 우즈베키스탄이 선택한 점진주의 체제전환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진 (2010),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비교경제연구』, 제17권 1호(2010), pp.100~108을 참조.

의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점진적인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전략을 따랐으며, 이를 경제발전에 대한 개발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접근과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 모델은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특징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모델의 모든 특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모델'의 핵심을 나타낸다.³⁰⁾

통화레짐: 복수의 환율과 외환통제를 유지

무역레짐: 다수의 생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

금융시스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신용할당과 국영은행에 기초한 금융제도

기업에 대한 개입: 공업과 농업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산업정책: 특정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수입대체정책: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수입원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위에서 열거한 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상황에 대응하여 시간을 달리하면서 실시되었다.³¹⁾ 1992년부터 우즈베크 정부는 에너지

30) D. M. Kotz, "The 'Uzbek Growth Puzzle'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Paper presented at a session on 'Issues in Economic Transition' sponsored by the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 at the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Convention, January 2004, p.7.

31) 체제전환에 대한 우즈베크의 접근은 '점진주의'로 불리지만, Pomfret은 우즈베크의 개혁경로

와 곡물의 자급자족을 추구하기 위해 엄격한 중앙통제를 통해 국내의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고 다른 작물로부터 곡물재배로 토지이용을 전환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목표는 1995년에 이르러 대체로 달성되었다.

공식 통계는 2000년까지 경제의 비국가부문이 GDP의 72.6%와 고용의 76%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³²⁾ 그러나 정부는 공적 기업이든 공식적으로 사유화된 기업이든 대기업에 대해, 그리고 면화와 곡물생산에 대해 중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1998년의 법령은 외국인 주주가 지배지분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출의 70%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질 만큼 시장경제로의 중대한 전환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소비에트식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를 비롯하여 여타 포스트소비에트 체제전환 경제가 공유하는 공통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워싱턴컨센서스의 권고와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 주도의 체제전환과 발전전략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³³⁾

는 세계의 뚜렷이 구별되는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느리고 제한된 개혁의 시기(1992~1993년), 가속화된 개혁의 시기(1994~1996년), 정체된 개혁의 시기(1996~2001년)가 그것이다. 다음을 참조. R. Pomfret, "The Uzbek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1991~1999", *Economics of Transition*, vol. 8, no. 3, 2000, pp.733~748; World Bank, "Uzbekistan: Social and Structural Policy Review", *World Bank Report No 19626* (Washington DC: World Bank,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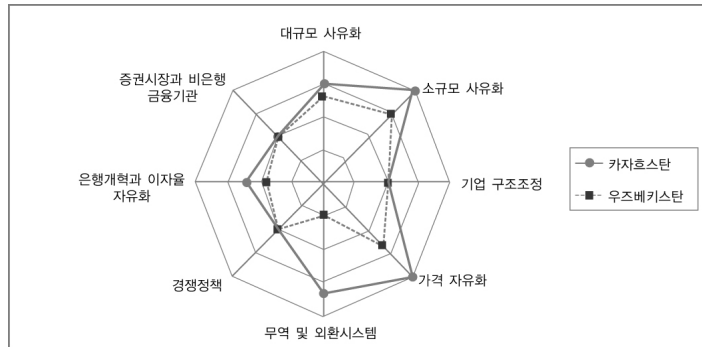
32)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의 웹사이트(<http://www.stat.uz>)를 참조.

33) 우즈베키스탄이 워싱턴컨센서스 접근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소비에트시기에 고스플란 우즈베크 정부의 수장이었으며 경제정책에 관해 강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4. 시장경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비교

(1) 1990년대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실적 비교

[그림 6-1]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이행지표 비교(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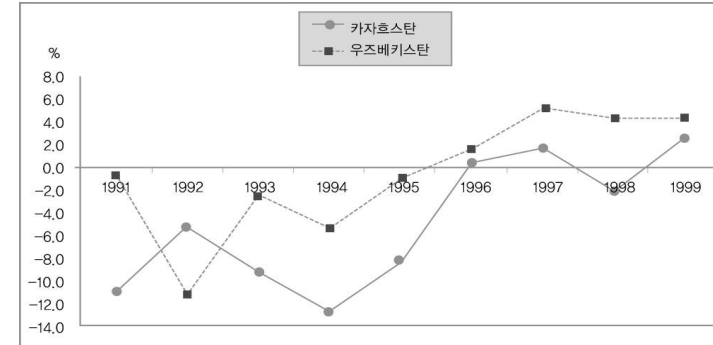
출처: EBRD, Transition Report, 2009.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체제전환전략과 경제성과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적극적인 자유화 전략을 채택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고유한 형태의 점진주의와 순서에 입각한 느린 개혁을 통해 경제를 전환하려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속도와 개혁정책의 범위에서, 특히 무역자유화,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이자율 자유화와 같은 영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확실하게 앞섰다([그림 6-1] 참조). 이러한 평가는 다른 관측기관도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³⁴⁾ 그러나 체제전환의 성공에 결정적인 두 가지 제도적 영

34)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1999년 '국가정책과 제도의 평가(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와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의 1998년 '경제자유도 지수

역(기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경쟁정책)에서의 성과는 양 국가 모두 불충분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6-2] 1990년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 비교



[그림 6-2]에서 보듯이, 체제전환에 착수한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1992년을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비정통적인 정책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1992~200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실적은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가장 앞선 성과를 보였다. 체제전환 초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 축소는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가장 완만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1995년에 끝났다.³⁵⁾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전반기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는데,

(Indices of Economic Freedom)'를 들 수 있다.

35) 체제전환에 착수한 이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진(2009), pp.118~126; 김영진(2010), pp.109~115.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GDP가 2/5 이상이나 하락했다. 이러한 경기하락은 1996년과 1997년에 멈추었으나, 1998년에 다시 GDP의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다. 그리고 1999년에 보인 미약한 플러스 성장의 실적을 시발로 하여 마침내 10년에 걸친 초라한 거시경제 실적을 마감했다(표 6-3 참조).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초기의 높은 소득과 인적 자본,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외부적 충격과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숙련기술자의 이민은 막대한 산출량의 축소를 가져왔다. 1990~95년 사이에 국내생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되었으며 그 하락률은 이 시기의 첫 5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2년 1월에 가격자유화를 신속하게 실시했지만,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1997년에 들어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긴 했지만, 1992~93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하락시키는 데서 지체한 것도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낳았다.³⁶⁾ [표 6-3]에서 보듯이 가격수준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체제전환을 시작한 1992년 이래 3년간 네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최고조에 이른 1994년에 연간 인플레이율은 1892%였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96년의 인플레이율을 두 자리 수로 하락시키고 마침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가격자유화 시기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 가능성을 파괴했다.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해진 것이다.³⁷⁾

36) R. Pomfret(2006), pp.41~42.

[표 6-3] 1990년대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실적(1992~2000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성장률(%)	-5.3	-9.2	-12.6	-8.2	0.5	1.7	-1.9	2.7
물가상승률(CPI), %	1,381.0	1,662.3	1,892.0	176.3	39.1	17.4	7.1	8.3
실업률(%)	0.4	0.5	8.0	10.1	7.6	6.5	13.1	13.5
재정수지(GDP 대비 %)	-7.3	-4.1	-7.4	-3.4	-5.3	-7.0	-8.0	-5.2
경상수지(GDP대비 %)	-25.0	-7.8	-7.6	-1.3	-3.6	-3.6	-5.5	-1.4
대외부채(GDP대비%)	0.6	30.9	23.5	28.6	27.6	35.0	44.9	71.6

출처: EBRD, Transition Report 2002.

소비에트공화국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소련 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적 붕괴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소련 각지(대개는 러시아)의 공급업자, 제련업자, 그리고 최종 이용자를 포함하는 생산연쇄에 의존하는 단일기업 도시와 관련되었다. 서부 카자흐스탄의 미발달한 석유산업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했는데, 카자흐스탄 북동부에 있는 파블로다르(Pavlodar)의 주요 정유공장 남부에 있는 쉘켄트(Shymkent)는 시베리아 석유유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유화를 통한 소유권의 확정은 더욱 장기적인 면에서는 생산의 효율을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1995~96년의 대규모 기업의 무질서한 사유화는 혼란을 가중시켰다.³⁸⁾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1996년 이래 연평균 4%에 가까운 비율로 성장했다. 1997년의 1인당 소비는 1993년의 수준을 약간(0.5%) 상회했다.

37) Keith Griffin, "Social Policy in Kazakhstan during the Economic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6, No. 1/2/3(1999), p.141.

38) 법규와 공정성을 무시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식의 사유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의 지배가 출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다음을 참조. K. Hoff, and J. Stiglitz, "After the Big Bang? Obstacles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of Law in Post-communist Socie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3(2004), pp.753~763

2001년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1989년 수준을 3% 상회함으로써 구소련 공화국 중 1989년의 수준을 최초로 뛰어넘은 국가가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1년 14개 다른 구소련 공화국은 1989년의 수준에 비해 35%(몰도바)에서 88%(벨라루스)에 이르는 GDP 수준을 기록했다.

[표 6-4]는 1992년 이래 우즈베키스탄 경제실적의 네 가지 주요 지표를 보여준다. 다른 모든 구소련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붕괴 후 대규모 경제 축소를 겪었다. GDP는 1992~95년 동안 누적하여 18.4% 축소되었다. 그 후 1996년에서 2001년의 시기에 26.2% 상승하였다. 1990년대 초의 대단히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1994년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그 후 1997년을 지나 연간 약 25% 수준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1992년에 GDP의 18.3%까지 치솟았으며, 그 후 한 자릿수로 하락하여 1996년 후에는 GDP의 3%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경상수지 균형은 더욱 복잡한 경로를 따랐는데, 처음에는 1992년의 매우 큰 적자규모에서 1994년에 소규모의 흑자를 나타내고, 그 후 1997년에 걸쳐 적자로 전환하였다가 그 이후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환했다.

[표 6-4]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실적(1992~1999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성장률(%)	-11.1	-2.3	-4.2	-0.9	1.6	2.5	4.3	4.3
인플레이션(CPI), %	910	885	1,281	116.9	64.3	27.6	26.1	25.2
실업률(%)	0.1	0.3	0.3	0.3	0.3	0.3	0.4	0.4
재정수지(GDP 대비 %)	-18.3	-14.9	-5.6	-3.8	-7.9	-2.2	-3.8	-3.0
경상수지(GDP 대비 %)	-12.0	-8.6	2.1	-0.2	-7.8	-5.4	-0.9	-2.0
대외부채(GDP 대비 %)	3.1	20.4	19.5	19.7	18.3	20.9	31.0	50.4

출처: EBRD, Transition Report 2002.

전반적인 개혁 추진이란 면에서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³⁹⁾ 사회보호전략을 내세우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사회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고 분권화된 마할라제도(mahalla scheme)를 도입했다.⁴⁰⁾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호부조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우즈베크 정부가 독립 이래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GDP의 약 10% 수준을 유지한 우즈베크의 교육에 대한 지출은 역내의 어떤 다른 국가보다 더욱 높았으며, 사실상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높았다.⁴¹⁾

다른 체제전환 경제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체제전환 초기에 심한 생산축소를 겪지 않았으며 플러스 산출성장을 최초로 보인 국가에 속했는데, 1996년에 처음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누적적인 생산축소는 약 18% 정도에 불과했다. 1996년 이래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했다. 1996년부터 2001년

39) 국민계정통계를 평가하는 데서의 방법론적인 결함 등에 기인한 우즈베크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비록 국제기관의 지도에 힘입어 방법론적인 결점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성장수치의 초과보고와 인플레이션 수치의 과소보고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것을 고려하면 국제금융기관은 대개 우즈베크 거시경제 데이터의 자체의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들 독자적인 원천에서 나온다.

40) 마할라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사회제도의 한 형태로서 마할라는 소비에트 시기에 앞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J. Micklewright and S. Mamie, "Targeting Social Assist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Mahallas in Uzbekista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9, no. 4, 2005, pp. 431~447.

41) World Bank, "Republic of Uzbekistan: Public Expenditure Review", *Report No. 31014-UZ*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까지 연평균 산출성장은 약 4%였다. 성장률은 완만했지만, 2001년 시점에서 1989년의 GDP 수준을 능가하기에는 충분했다.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은 CIS 내에서 2001년까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였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04년과 2005년에 약 7%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의 수확이 증가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금, 면화, 천연가스 및 석유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생산물의 세계적인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었다. 게다가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이민노동자의 대규모 송금 유입이 최근의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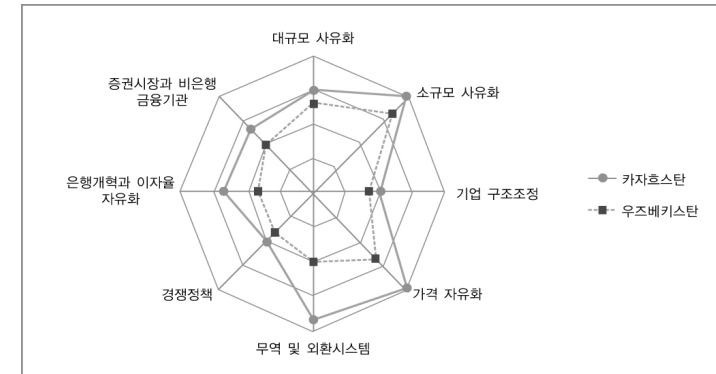
(2) 2000년대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실적 비교

2009년도 EBRD의 체제전환지표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진척도를 비교하면, 앞서 [그림 6-1]에서 살펴본 양국 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1999년의 지표에서는 세 항목에서 양국 간의 지수가 동일한 크기를 가졌으나, 10년이 경과한 2009년의 지표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진척도가 더욱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3] 참조).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경쟁정책 항목에서는 양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1999년의 지수에서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9년에 경제 흐름을 역전시키고 2000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국제석유가격의 상승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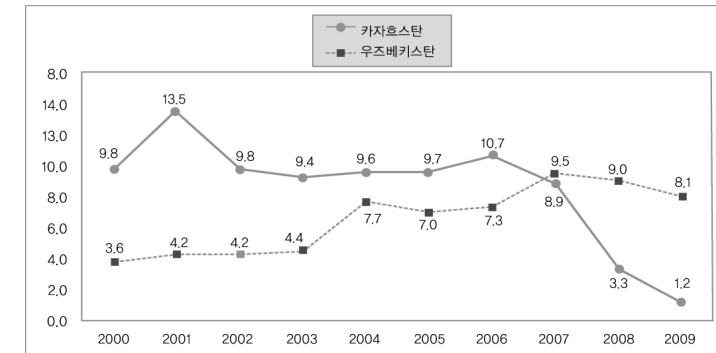
42) EBRD(2006), Ref 43.

[그림 6-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이행지표 비교(2009년)



출처: EBRD, Transition Report, 2009.

[그림 6-4] 2000년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 비교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5월 정부는 경제의 체질강화와 금융적 강세를 보이는 신호로 IMF의 부채를 조기에 상환했다.

2000~2007년에 걸쳐 연평균 10%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험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표 6-5 참조). 체제전환 초기인 1994년 -12.6%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인 카자

호스탄 경제는 2000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1년 13.5%, 2006년 10.7%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동력은 국제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의 호조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실한 증가이다. 카자흐스탄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약 90억 배럴(세계 17위), 추정매장량은 966억 배럴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석유·가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은 2000~2007년 기간 동안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의 총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24.0%와 18.6%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는 석유 및 가스산업에, 정부의 공공투자는 사회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다.

[표 6-5]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2009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9.8	13.5	9.8	9.3	9.6	9.7	10.7	8.9	3.2	-1.3
1인당GDP(미 달러)	1,230.5	1,491.7	1,657.2	2,062.3	2,862.5	3,785.8	5,261.1	6,748.1	8,719.0	-
인플레이션(CPI)	9.8	6.4	6.6	6.8	6.7	7.5	8.4	18.8	9.5	5.8
재정수지(GDP대비, %)	-1.0	2.7	1.4	3.0	2.5	5.8	7.2	4.7	1.1	-2.0
경상수지(억 달러)	3.7	-13.9	-10.2	-2.7	4.5	-10.4	-19.0	-82.2	70.0	-22.5
경상계정/GDP(%)	2.0	-6.3	-4.2	-0.9	1.1	-1.8	-2.3	-7.8	5.2	-2.1
무역수지(억 달러)	21.7	9.9	19.9	36.7	67.8	103.7	147.0	141.4	335.0	142.0
수출(억 달러)	92.9	89.3	100.3	132.3	206.0	283.5	388.0	473.5	720.0	432.0
수입(억 달러)	71.2	79.4	80.4	95.6	138.2	179.8	241.0	332.1	385.0	290.0
FDI(억 달러)	12.8	28.6	21.6	22.1	54.4	21.2	66.6	80.0	107.0	82.0
총외환보유고(억 달러)	16.0	20.0	25.6	49.7	86.0	62.0	179.0	159.0	181.0	-
대외부채잔고(억 달러)	126.8	151.6	182.5	229.2	329.5	434.3	741.0	967.0	1,061.0	-
대외부채/GDP(%)	69.3	68.4	74.1	74.3	76.3	76.0	91.5	92.2	78.2	-

주: * 금 제외, 연말 기준

출처: EBRD, Economic Statistics and Forecasts(<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index.htm>).

석유산업은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으로, 2005년에 1일 124만 3,000배럴에 총 6,190만 톤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하였다. 2000~2005

년까지 카자흐스탄 석유생산은 연평균 10~15% 증가해 왔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생산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로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유전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텡기즈(Tengiz), 카라차가나크(Karachaganak), 카사간(Kashagan), 쿠르만가지(Kurmangazy) 등이 있다.⁴³⁾

1999년 이후의 석유 붐은 석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주된 우려의 하나는 제도적인 환경이다. 1994년에 정치적 다원주의가 잠시 번성하였으나, 1995~96년에는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전개되면서 1990년대 이래 카자흐스탄의 정치사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유화 과정은 부패를 잉태하고 거버넌스 기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우려는 풍부한 석유자원의 역할이다. 석유는 2000년 이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확인 매장량은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상당 규모의 석유생산을 보장하고 있지만, 석유부문은 공적 자원을 민간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가장 부패한 부분이었다.⁴⁴⁾

[표 6-6]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거시경제실적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4년 이래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3) 카자흐스탄의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철원·신현준, "제4차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상황과 전망", 이재영·박상남 편저,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4) R. Pomfret(2006), p. 44.

[표 6-6] 우즈베키스탄의 거시경제실적 지표(2000-2009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성장률(%)	3.8	4.1	4.0	4.2	7.7	7.0	7.3	9.5	9.0	7.0
1인당GDP(달러)	366,2	305,3	333,1	386,5	474,4	567,5	630,8	814,8	1,007,4	-
인플레이션(CPI)	28,2	26,5	21,6	7,8	9,1	12,3	11,4	11,9	14,4	14,5
재정수지(GDP대비, %)	-2,5	-1,3	-1,9	0,1	1,2	2,8	6,8	5,7	10,5	2,0
경상수지(억 달러)	2,5	-1,1	1,2	5,9	8,6	11,0	15,5	16,3	35,6	22,0
경상수지/GDP(%)	2,7	-1,5	1,4	5,9	7,0	7,4	9,1	7,3	12,8	7,8
무역수지(백만 달러)	4,9	1,9	3,2	8,0	12,4	12,9	13,7	19,0	30,8	24,9
상품수출(억 달러)	29,3	27,4	25,1	32,1	43,0	46,0	53,8	77,0	111,3	105,3
상품수입(억 달러)	24,4	25,5	21,9	24,1	30,6	33,1	40,1	58,0	80,5	80,4
FDI(억 달러)	74,7	82,8	65,3	82,6	176,6	191,6	173,8	705,2	711,3	711,3
총외환보유고(억 달러)	13,6	13,0	13,0	16,6	23,2	29,9	37,8	51,9	90,7	-
대외부채 잔고(억 달러)	43,9	446,0	42,6	42,5	43,0	41,3	37,7	37,3	37,5	-
대외부채/GDP(%)	48,7	58,5	44,1	43,7	37,3	31,3	22,1	16,7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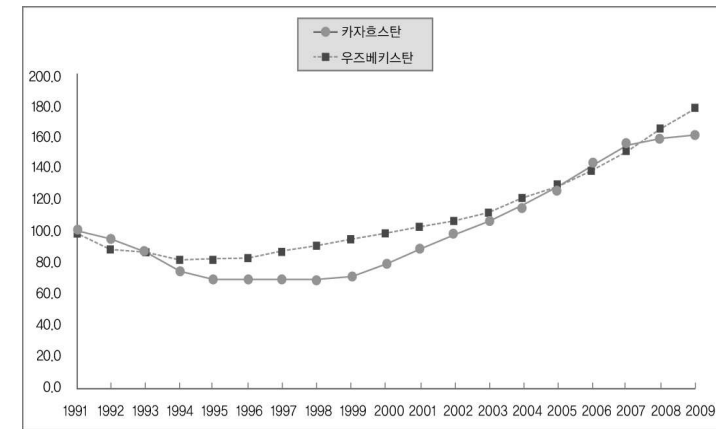
주: * 금 제외, 연말 기준

출처: EBRD, Economic Statistics and Forecasts(<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index.htm>).

하고 외부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각각 9.6%, 9.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수입대체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 주요 생산 물에서 자급자족과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우즈베크 경제가 외부의 충격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최근 경제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와 비교된다. 물가수준은 2003년 이래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2003년 이래 흑자를 보이고 무역수지도 안정기초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상당한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수지 흑자는 32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증가를 뒷받침했다. 우즈베키스탄의 GDP 대비 총국가부채의 비율은 2008년 말 현재 13.6%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에서

[그림 6-5]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GDP 지수의 변화 비교(1991=100)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은행 기업 및 여타 비즈니스 단위의 부채 또한 포함한다. CIS의 다른 국가의 대외부채에 관한 수치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쉽게 알 수 있다.

1991년을 100으로 한 양국의 GDP 지수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엔 우즈베키스탄의 GDP 하락폭이 적고 회복세가 더욱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의 시점에 CIS 국가 중 가장 일찍 1991년의 GDP 수준을 회복했으며, 카자흐스탄은 2003년에야 1991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 또한 체제전환 첫 해인 1992년을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의 GDP 지수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탄을 앞섰으며, 2년에 걸쳐 카자흐스탄이 앞서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08년부터 다시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을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2000년대 이후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을 능가하여 역내 지도국으로 나설 수 있는 더욱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첫 10년 동안은 1차적으로 실효성 없는 체제전환전략 및 무기력한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주요 수출상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취약한 출발로부터 회복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되돌려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1차적으로 자국의 조건에 부합하는 체제전환전략과 균형 잡힌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주요 수출상품가격의 상승 경향으로 인해 초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세기가 전환되면서 카자흐스탄에 뒤처지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2007년 중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미 2007년 8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7년의 최종적인 GDP 성장률은 8.9%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 걸친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2008년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8년의 경우 GDP는 3.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09년에는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높은 국제석유가라는 유리한 대외적 여건이 사라진 조건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가 외부적 충격에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 실시된 충격요법 모델에 기초한 체제전환전략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주된 우려는 석유 및 주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의존, 적절한 제도적 틀의 결여, 중소기업의 결여,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부패의 만연 등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도건설 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다. 부패는 카자흐스탄과 여타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나 정부조달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석유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엘리트들의 치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체제전환에 대한 점진주의 접근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체제전환 초기에 산출의 극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경제의 중앙집권화된 관리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조건, 경제구조, 풍부한 천연자원 부존, 수출수입(收入)의 획득 가능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개혁전략의 선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제 회복세를 설명한다. 이 시기에 채택된 정책은 우즈베키스탄이 2001년까지 체제전환 이전의 산출 수준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석유, 천연가스, 밀을 비롯한 대다수 소비재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지출의 성격과 나아가 이들 정책의 효율성은 의심받을 수 있지만, 교육과 의료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모델은 우즈베키스탄을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고도성장의 경로에 올려놓지는 못했으며,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 이들 정책의 귀결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정책이나 산업정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투자를 촉진하고 외화 취득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적절한 성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모델은 과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향한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기등이 될 적절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것은 국내적·국제적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권고는 지배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조화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콜로드코(G. Kolodko)가 주장했듯이, 체제전환에 대한 점진주의적인 접근이 적절한 제도건설을 위해 이용되면서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콜로드코는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적절한 제도적 틀이 없는 전체 체제전환 과정은 “연고자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⁴⁵⁾ 면밀히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의 두 공화국이 그러한 경우다.

논문 접수일 2010.06.29

심사 완료일 2010.07.29

45) G. Kolodko, *From Shock to Therapy: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143~144을 참조.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Kazakhstan and Uzbekistan

Kim, Youngj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se initial conditions and transition strategies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framework of economic transition, then to assess the influences of these factor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two countries in 1990s and 2000s. For the comparison of choices of the two countries' transition strategies, analyses on shock therapy and gradual transition will serve as a general backbone and theoretical tool. And, it will be analysed the influences of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the reform policy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s we can see the trends since 2000s, Kazakhstan became to have a better chance in an economic aspect to succeed and became the regional leader over Uzbekistan. Although Kazakhstan had been ruined the first decade of its independence due to its unsuitable economic policy choices and low prices on its main exporting commodities, the country has been able to recover from this poor start and get its economy back on track. Whereas Uzbekistan, having initially demonstrated promising performance, due to good economic policy choices, such as well-balanced privatization, and buoyant prices on its main exporting commodities it found itself lagging behind Kazakhstan by the turn of the century. But, both countries have to take various measures to develop and enhance the proper institutions which would become the pillars of the successful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 Keywords

Shock Therapy, Gradualism, Transition Strategy,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